

법사의 꿈을 키우며 (상)

김한중 (교도소 재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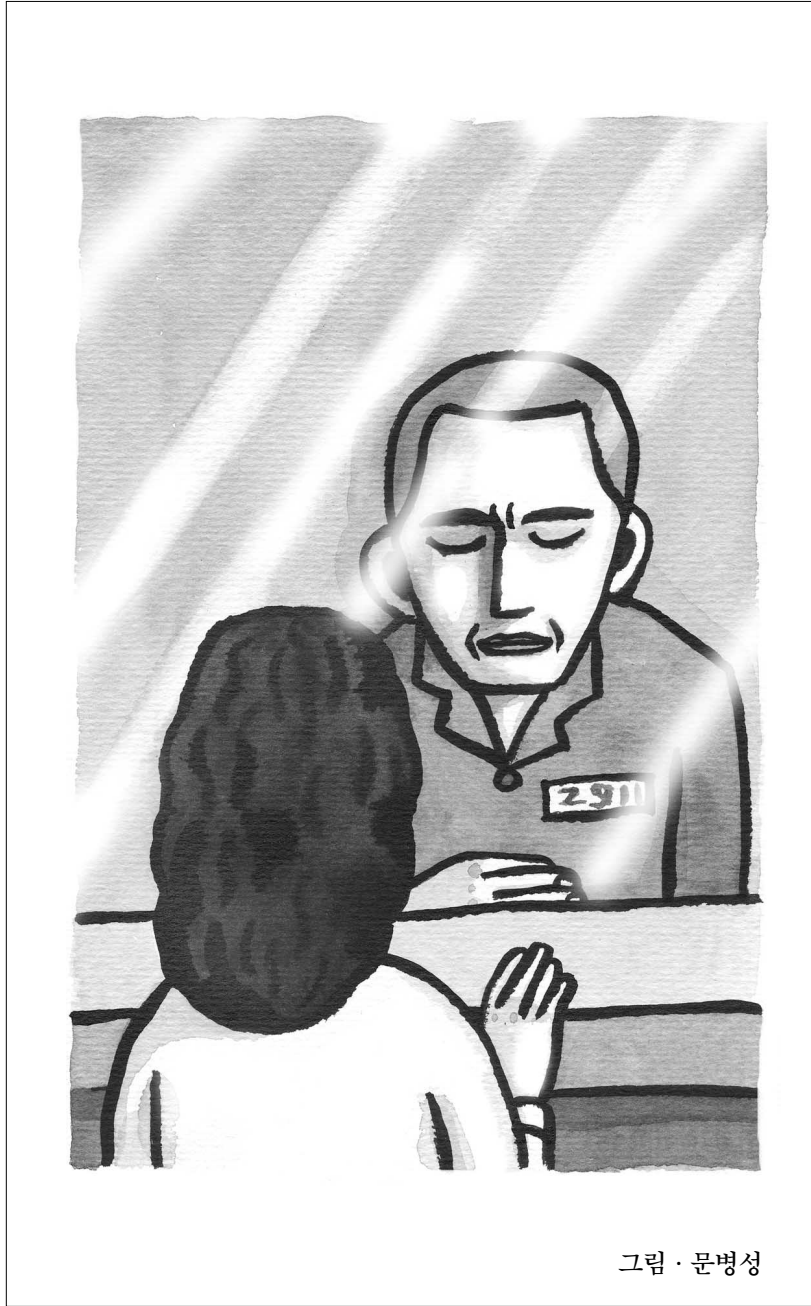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진실이 담기지 않은 겉치레 많은 그럴 듯 하고 멋지다고 하더라도, 죽은 씨앗과 같아서 아무리 기름진 땅에 심어도 싹을 틔우지 못한다. 그리고 인생이란 ‘응애’ 하고 고성을 울리며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예고된 죽음을 선고받는 것이다. 재산·권력·명예라는 것은 본래가 실체가 없어서 허망한데, 활나뿔안 살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서로 탐욕을 부려 재산과 권력을 탐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행복한 가정, 탄탄한 사업체 자신감 가득

‘아상’의 작은 불씨 다스리지 못해 살인

아내 헌신에 자책·원망은 부끄러움으로

28년 전 한 사람의 불교청년회에 들어가면서 부처님 법과 처음 인연을 맺었을 때, 어느 스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법문입니다. 처음 불교에 입문하여 부처님 법에 귀의하셨던 계를 받을 때는, 나름대로 원을 세워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출세욕에 눈이 멀어 사는데 급급하다는 이유로 정기 법회에 한 번, 두 번 빠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현실주의적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었지요. 하지만 하루하루를 의미없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돌이켜 보았지요.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놓치고 사는 것은 없나?’ 며칠 고민 끝에, 내 무릎을 탁 치게 한 것은

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었을 때 들었던 스님의 법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실체가 없어 허망한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는 말씀이었지요. 그 말을 되새기니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짐에 또 다짐을 했지요. 법회와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 법회에 참석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지요. 그렇게 부처님 법을 믿어서 그랬을까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만해 스님은 <님의 침묵>에서 ‘날카로운 컷 키스에 눈이 멀었다’며 주옥같은 시를 썼지요. 나도 그랬습니다. 아내를 만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얼굴은 나에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1년 넘게 연애기간을 갖고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나는 아내와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중심사 큰스님을 모시

어렵게 부부가 됐으니 열심히 살아 보자고. 큰스님의 높은 공덕이었을까요.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들 둘이 태어났고, 그 형제를 키우면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비록 크지 않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지만, 알뜰히 운영하면서 스스로 남부럽지 않은 사업체라 자부하기도 했습니다. 욕심이 크면 탈이 난다고 했던가요? 불자로서 이미 그 때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법회 날이면, 바쁘다 피곤하다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워 아내 혼자 보내곤 하였습니다. 나는 회로애라 뒤엎긴 생활 속에서 ‘내가 최고다’는 아만심으로 가득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사소한 말에도 신경질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의 마음은 불만투성이로 변해 버렸고, 모두가 돈으로만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하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4상을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나는 ‘아상’이라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바로 다스리지 못하고 존귀한 한 생명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살인을 하고만 걸니다. 순간의 실수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아 버렸습니다. 이후 재판정에 서게 되었고,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기형이었습니다. 선고 받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출소하는 그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아내는 자식과 가정을 버리지 않을까?’ 온갖 망상에 사로잡혀 나의 죄를 참회하기 보다는 나를 구속시킨 사회를 원망하는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하루하루 무의미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교도소 안은 나의 마음과 몸을 움아 뭉뚱했습니다. 정말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분노와 자책만이 밤낮을 가리

어렵게 부부가 됐으니 열심히 살아 보자고. 큰스님의 높은 공덕이었을까요.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들 둘이 태어났고, 그 형제를 키우면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비록 크지 않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지만, 알뜰히 운영하면서 스스로 남부럽지 않은 사업체라 자부하기도 했습니다. 욕심이 크면 탈이 난다고 했던가요? 불자로서 이미 그 때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법회 날이면, 바쁘다 피곤하다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워 아내 혼자 보내곤 하였습니다. 나는 회로애라 뒤엎긴 생활 속에서 ‘내가 최고다’는 아만심으로 가득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사소한 말에도 신경질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의 마음은 불만투성이로 변해 버렸고, 모두가 돈으로만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하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4상을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나는 ‘아상’이라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바로 다스리지 못하고 존귀한 한 생명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살인을 하고만 걸니다. 순간의 실수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아 버렸습니다. 이후 재판정에 서게 되었고,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기형이었습니다. 선고 받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출소하는 그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아내는 자식과 가정을 버리지 않을까?’ 온갖 망상에 사로잡혀 나의 죄를 참회하기 보다는 나를 구속시킨 사회를 원망하는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하루하루 무의미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교도소 안은 나의 마음과 몸을 움아 뭉뚱했습니다. 정말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분노와 자책만이 밤낮을 가리

그렇게 고통의 나날을 지내던 어느 날, 아내가 면회를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보다 미안함 마음이 앞서 면회장에 가기를 망설였습니다. 몇 분을 고민했을까요? 반쯤 내 마음을 잡고 면회장 문을 열고 들어가 회부인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아내와 마주했지요. 나는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얼굴을 보이기 싫어 아내의 눈을 연신 피했습니다. 1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아내는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겪어야 할 고통의 세월이 길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길겠지만요. 하지만 부처님처럼 우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고행하셨던 수행 기간을 생각하면 당신이 겪어야 할 고통의 시간은 참나에 불과할 거예요. 옛날 청년시절 오계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봐요. 연비 자국을 보면서 나도 이제 진정한 불제자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보세요. 부처님의 정법의 길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겠다고요.” 아내는 그렇게 생긋 웃을 지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한없이 울었습니다. 자책과 분노, 원망과 후회... 그동안 가졌던 마음저리가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돌아서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짐했습니다. ‘아내에게 다시는 부끄럽지 않은 불제자가 되겠다’고. 그날의 약속은 사소한 일에도 마음저리가 쉽게 흔들렸던 나를 울금게 세웠지요. 그리고 나서 나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나보다 불심이 더러운 아내는 오늘도 뿌려놓는 가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직장생활에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하는 마음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이 나에게 관세음보살의 현신입니다. 그런 모두가 나에게 내려주시는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생각되네요.(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술하게 되어 보내드립니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인필(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s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린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계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중,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전통범음법(바리작법)과정 수강생모집

대구경북중무원 부설 범음법교육원에서 200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적인 범음·범패·작법(바리춤, 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1년과정, 대한민국무형문화재 제50회 영산재)
● 강사: 경허 상진스님(영산재 보존회 회원)

학기	월	일	강의 내용	비고
1학기	2006년 3-6월	기초: 목탁치는법, 삼귀의례, 사물서원 천수경, 도량식, 종송 등	기초범공의식	
		예배: 왕수해례, 사경례, 활공례(오부왕례), 각단예배 및 각단 불공의식	재사의식	
2학기	2007년 7-9월	사석: 관음시식, 상용염병, 화불시식 구명시식, 장의례, 방생의식		
		상주관공(범음범패)	대장단법, 천수바라도령가(나비춤) 외..... 범음·범패	
2학기	2007년 10월 ~ 1월	친도익시(전행범음)	범주, 바리차 관악법, 화안법, 바리향수나눔(범음)	
		시연회 준비	종로계 신중작법(39위) 상단관공 및 시식 상보통행, 지장경, 시식회향	범주, 바리차 관악법, 화안법, 바리향수나눔(범음) 시다나바리 문상계, 기지계(범음) 화향, 축원회향
2007년 2월	시연회 준비	전체교과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시연회.	특강: 범고공역계(범음)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수시모집 (매주 목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3. 입학자격: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학기당 600,000원(총 2학기)

5. 강의장소: 한국불교대학교 대구경북중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7. 접 수 처: 한국불교 대학교 대구경북중무원

8. 문 의 처: (053)622-3702

한국불교 대학교 대구경북중무원 부설 범음법교육원

목조 건축

◆ 현대식건축 목조 + 빔

- 제일 튼튼한 집 150년이상 보장
- 제일 저렴한 한옥집 평당 200만원대

◆ 목조건축

- 육송, 낙송, 수임목 다량보유
- 타사 건축업체와 견적서를 받아보셨습니까?
- 목조건축을 350만원대에 시공합니다. 나무 시세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사문리

TEL 043)848-5311, 3
H·P 010-6399-5311

퇴행성관절염·류마티스 신경통·오십견·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원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원(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광한의원의 윤광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류마티스·신경통·오십견·디스크 등의 환자와 견정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원(丸)을 처방하여 환자들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원(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렵던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함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원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광한의원 상담 문의 080-598-9832

간(肝)

간지방간염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울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동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딘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더딘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신미를 토중 (민속농원)